

닭고기유통 / 롯데마트 이권재 MD

영계로 만든 삼계탕 인기 높아진다



닭고기 신선육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대형 매장에서 이번 여름 복(伏)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 계육·계란 바이어 이권재 과장(MD)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닭고기 판매 감소, 매출 증가

AI이후 4~5월부터 닭고기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6월에 들어서면서 전년대비 매출액이 15~20%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수수는 6월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해보다 마이너스 7~8% 수준을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 조류독감(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이권재 MD는 오는 7월 20일 초복이 다가오는 7~8월이면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 산지 닭 가격도 kg당 1,400원 이상을 유지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 롯데마트 닭고기 판매 매출은 전년보다 약 20% 상승하게 될 전망이고, 잠실점의 경우 30%까지 매출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복 기간 중 매출액은 6월 16일 현재 1일 100만원(약 400수)보다 4~5배 증가한 400~500만원까지 상승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마와 경기 침체가 변수

이상권 MD가 복 기간 중 판매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요인은 최근 올 여름철 기온 급상승, 냉동 닭고기 수입 중단, 경기 불황이다.

복 기간 중 날이 더우면 5~7% 닭고기 소비 증가 효과가 발생하고, 닭고기는 경기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 불황일수록 보양식으로 영계와 삼계탕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닭고기 수입중단으로 국내산 닭고기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상 기온으로 장마가 길어지고, 현재보다 국내 경기 급냉으로 인한 소비지수 폭락이 변수라는 지적이다.

가격과 신선도 중요

롯데마트 잠실지점 주변은 전형적인 아파트 공동단지 지역으로 평상시는 생닭 매출이 70~80%를 차지하지만 복 때는 600g 이하의 영계 판매가 월등히 높아진다. 최근에는 초보 주부가 늘어나면서 모든 재료가 들어 있어 끓이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삼계탕용을 선호하는데 영계보다 가격이 1.5배 높아 판매량은 적다는 것이다.

이권재 MD는 닭의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매일 배송을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소비자 리콜이 없을 정도로 매장과 품질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 | 김중준 과장) **양계**

